

## 사료분야의 해외자원개발 서둘러야



김 정 호  
한국사료협회 회장

뉴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전인 90년대에 「월드 위치」에서 세계 식량 부족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경고한 바 있었다. 당시에만 해도 이는 먼 훗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으나 최근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현상을 접하면서 세계적인 식량난 문제가 이시대의 현실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무척이나 우려가 된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톤당 130~140불 하던 옥수수 가격이 지난해 11월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톤당 200불선을 뛰어넘더니, 금년 6월에는 톤당 240불대까지 치솟아 불과 1년 사이에 옥수수 가격이 60%이상이나 뛰는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옥수수뿐만이 아니다. 대두박, 소맥피, 채종박 등 모든 사

료원료들이 동반 폭등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곡물가격 급등이 세계경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다는 소위「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최근의 곡물가격 급등 현상은 단순히 풍흉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곡물을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과 같은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는데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러면, 계속 치솟고 있는 세계곡물시장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 사료업계의 대응 능력은 과연 어떤 수준인가?

잘 아시다시피, 국내 사료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 사료원료곡의 95%이상을 해외에 의존(연간 900백만톤 이상 수입)하는 세계에서 일본

에 이어 2번째의 최대 buyer이기 때문에 세계 곡물시장 변화에 가장 민감한 위치에 있다. 더군다나, 곡물 메이저를 통한 물량 확보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는 취약한 입장에 있으며 아울러, 비축제도와 같은 국내수급관리 안정장치마저 없어 불안한 세계곡물시장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게 국내 사료 업계가 안고 있는 현실적 고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등하는 국제곡물가는 국내 사료사업은 물론, FTA등으로 기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겠다.

해외 곡물 시장변화에 몇몇 다국적 곡물메이저에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을 뛰어 넘지 않고서는 국내 사료업계나 축산업계의 건실한 발전을 기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업계나 정부차원에서 사료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특히, 해외 사료자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현재 사료협회가 중심이 되어 사료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을 착수한 상태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석유자원이나 광물자원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인간과 동물의 가장 중요한 생명자원이기도한 사료자원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나 정책적 면에서 관심밖

에 놓여 있는 게 오늘의 현실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 사료분야의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몇 가지 원칙론적 방향을 제시해 보고 싶다.

먼저, 개발 방식에 있어, 과거 남미 농업이민이나 해외 농장 확보와 같은 정부주도의 고전적인 접근 보다는 업체와 정부가 해외 자원 확보에 공동 참여.

둘째, 석유자원 개발이나 광물자원 개발과 같이 정부차원에서 일정기금을 (또는 기존기금에 별도 계정) 조성하여 해외개발투자에 따른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

셋째, 사료원료의 비축개념을 제도화하여 국내 소비량의 일정율(10~20%)을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한 물량 확보 및 운영.

넷째, 해외 투자 대상 지역은 유희농경지가 풍부한 남미, 러시아 극동지역(아무르, 하비로브스크, 블라디보스톡), 소련연방(우즈벡 등), 중국, 동남아(캄보디아 등)로 다양화.

다섯째, 개발 방식은 단순한 농장 확보 뿐 아니라, 지역특성에 따라 주요 항구의 엘리베이터 시설투자, 유통거점 확보 등 다각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며 실제 해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전문가그룹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와 투자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만, 해외 사료자원개발이 우리 경제나 축산분야에 가져다 줄 순기능은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